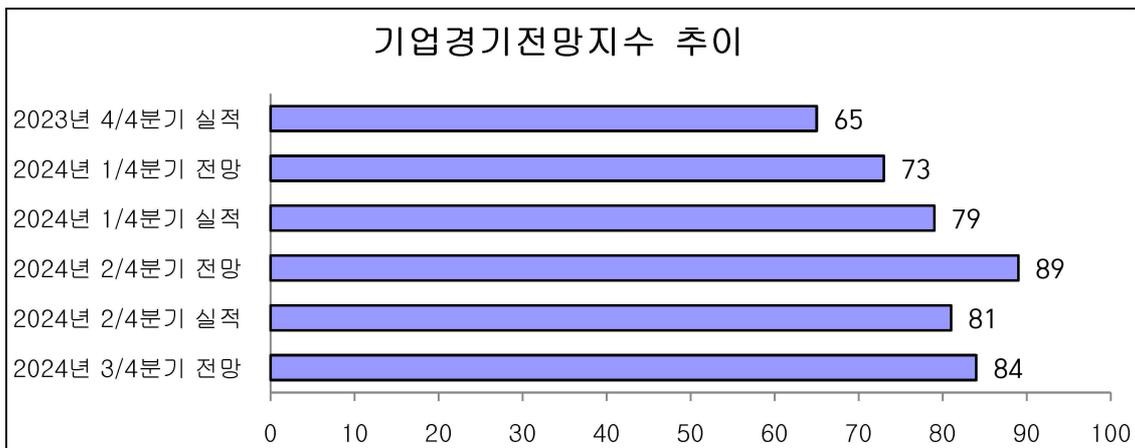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査結果	2024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경제사업부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정병대)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4년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5' 포인트 감소한 '84'로 집계됐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2' 포인트 증가하였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3년 4/4분기 실적	2024년 1/4분기 전망	2024년 1/4분기 실적	2024년 2/4분기 전망	2024년 2/4분기 실적	2024년 3/4분기 전망
체감경기	73	67	83	100	87	97
매출액	63	77	87	87	80	90
영업이익	57	70	73	80	77	87
설비투자	77	90	90	97	83	77
자금사정	57	63	63	83	77	70

2024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97, 매출액 90, 영업이익 87, 설비투자 77, 자금사정 70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이 100을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2024년 2/4분기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올해 상반기 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 예상에 대해 ‘소폭 미달(10%이내)’ 이 53.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하반기 실적(영업이익)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내수소비 위축’ 이 48.65%로 응답의 절반을 차지했다. ‘유가·원자재가 상승’ (24.32%), ‘규제강화 등 국내 정책이슈’ (10.81%)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이 회사 실적 및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현재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 있음’ 이 56.6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저가·물량공세로 인해 어떤 피해를 겪고 있거나 예상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판매단가 하락 압박’ (41.67%), ‘내수시장 거래 감소’ (27.78%)로 응답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지원정책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국내 산업 보호 조치 강구’ 가 39.39%로 가장 높은 응답율이었다. 그 뒤를 이어, ‘무역금융 지원 확대’ (18.18%),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15.15%), ‘FTA 관세혜택 활용 지원’ (15.15%), ‘신규시장 개척 지원’ (12.12%)로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조사기간 : 2024. 5. 28 ~ 6. 13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